

## 東醫寶鑑 單方에 관한 연구

김대식·윤창열\*

### A study on Dong-Eue-Bo-Gam(東醫寶鑑) Dan-Bang-Mun(單方門)

Kim Dae-Sik·Yoon Chang Yeol

Major in Korean-Medicine Original Dept. of Korean-Medicine Graduate School of  
Daejeon University

This paper is study on Dong-Eue-Bo-Gam(東醫寶鑑) Dong-Eue-Bo-Gam(單方門) that is written by Heo-Joon. When Heo-Joon wrote Dong-Eue-Bo-Gam(東醫寶鑑) between 1596 and 1610, it was the time for the people's healthy to be threatened by all kinds of infections and malnutrition.

Dong-Eue-Bo-Gam(東醫寶鑑) compiled Chinese medical books and our medical books that still exists systematically. Especially there was Dan-Bang-Mun(單方門), medical art that is to use only one herb, at the end of each chapter for the people to treat disease. There was Tang-Aek-Pyun the end of Dong-Eue-Bo-Gam(東醫寶鑑). In this part, as it says herbs in rural areas were written in details, it was easy for everyone to get herbs to prevent any disease and to treat their sickness.

That's why I'd like to succeed to our senior doctors' spirit for the medicine.

So I decided to study Tang-Aek-Pyun that is based on Dan-Bang-Mun in Dong-Eue-Bo-Gam(東醫寶鑑) and many herbs that refer to the 4th of Gang-Je-By-Geup(廣濟秘笈).

Medicine that was introduced in Dan-Bang-Mun(單方門) was 860 kinds of medicine.

Among them, I choose about 3 kinds of medicine that was used the most frequently.

keyword : Dong-Eue-Bo-Gam Dong-Eue-Bo-Gam, Tang-Aek-Pyun

### I. 序論

許浚선생이 『東醫寶鑑』을著述한 1596년에서 1610년은 壬辰倭亂 後 各種 傳染病과 營養不足으로 因해 어느 때보다 百姓들의 健康이 威脅받던 시기였다.

이시기에 內醫院에서는 『東醫寶鑑』을 集大成하며 宣宗王은 몸조리를 하는 방법으로써 백성들을 救濟하기 위하여 醫學에 관심을 두고 백성들

이 병으로 앓는 것을 걱정하여 丙申年(1596년)에 태의로 있던 허준을 불러 “窮村僻巷에 無醫藥而夭折者가 多라 我國鄉約은 多産而人不能知爾하니 宜分類並書鄉名하여 使民으로 易知하라 (산간벽지에는 醫師와 藥이 없어서 일찍 죽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藥草가 많이 나기는 하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 이를 분류하고 지방에서 불리는 이름도 같이 써서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하라.)”<sup>1)</sup> 하고 하였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은 중국의 여러 醫書들과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열 · E-mail : yooncy@dju.ac.kr  
· 채택일 : 2007년 12월 1일

1) 許浚, 『東醫寶鑑』, 동의보감출판사, 경남, 2006, 11쪽

지금 현존하는 책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함은 물론이요, 특히 일반백성들이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산간벽지에서 自生하고 있는 藥草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약초를 구해서 病症에 對備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筆者는 옛 선배 醫師들의 精神을 이어받아 『東醫寶鑑』 各編의 末尾에 있는 單方門을 基本으로 하여 최다빈도로 쓰인 약물을 기준으로 蔥白, 烏梅, 杏仁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 藥物들에 대한 湯液編의 說明을 編輯하여 실었으며, 마지막으로 『申氏本草學』과 『陳存仁本草』를 중심으로 이 3種의 약물들에 대한 醫家들의 見解를 살펴보았다.

『東醫寶鑑·集例』에서도 “醫術을 배우려면 먼저 本草學을 읽어서 藥性을 알라”<sup>2)</sup>고 하였고,

『東醫寶鑑·用藥·藥貴簡要』에서도 “藥은 간단 하면서 要緊한 것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藥貴簡要]”라고 하였듯이, 處方을 정확하게 쓰기 爲하여는 箇箇의 本草에 대한 깊이 있는 理解가 必須인 것은 물론이요, 處方을 구성함에도 箇箇 藥物의 特性을 살려 最大한 적은 數의 藥物로 處方을 구성함이 마땅하다.

모쪼록 이 單方 研究를 통하여 허준 선생의 불쌍하고 가난한 百姓들을 사랑하였던 그 精神이 現在 韓醫學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잘 繼承되기 바라며, 또한 箇箇의 本草學에 더욱 精通하여서 處方을 구성함에 날로 精密해지기 바랄 뿐 이다.

## II. 研究方法

1. 『東醫寶鑑·單方』門의 原文을 모아서 실었다. (동의보감출판사, 2006년도 판본사용)

2. 『東醫寶鑑·湯液』編의 原文을 실고, 각각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편집 하였다.

3. 歷代 醫家들의 說을 參考하여, 各條의 單方門에 사용된 藥物의 效能을 研究하였다. (『申氏本草學』<sup>3)</sup> 參考)

4. 各條의 內容을 綜合하여 각각의 單方門에서 쓰인 主治의 기전을 說明하고 考察하였다.

5. 考察은 『東醫寶鑑』에 나타난 單方藥의 效能에 依據하여 歷代 醫家들의 理論을 종합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 III. 研究內容

### 1. 蔥白

#### 1) 單方門 原文

① 氣：通陽氣 以通上下之陽 去青 取白 連根煎服 『本草』

② 津液：連鬚 用解表出汗 散風邪 水煎服 『本草』

③ 五臟六腑：調和藏腑 煮食之佳 『本草』

④ 肝臟：除肝邪氣 煮湯飲 或取汁飲 『本草』

⑤ 大腸部：通大小腸 取汁飲 煮汁飲之 並佳 『本草』

⑥ 大便：治大小腸不通 取白 搗爛和醋封小腹上 卽效 ○治赤白痢 葱白一握 細切和米 煮粥食之 『本草』

⑦ 頭：連鬚者治傷寒頭痛 煎服出汗卽效 太陽經藥也 『本草』

⑧ 面：主傷風 面目浮腫 煎湯飲之 洗之 『本草』

⑨ 胸：治心腹痛 又治急心寒 牙噤欲死 老葱白三五根 搗爲膏 幹開口 將膏送入咽喉 以香油四兩灌下 但得葱下喉 其人必甦 腹中虫積 化爲黃水 微利卽愈 永除根 『綱目』

⑩ 腹：主腹冷痛 濃煎湯飲之 又細切 和鹽炒熱 熨之良 『俗方』

⑪ 前陰：治奔豚疝氣痛 濃煎湯飲之 ○又瘻疝 小腹痛 細切 和鹽炒 熨之 『本草』

2) 동의보감출판사, 경남, 2006, 4쪽 “古人云欲學醫先讀本草以知藥性”

3)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년

⑫ 肛門：治腸痔下血 多取濃煮 作湯盛盆 熏之立差 ○肛熱腫 取青葉刮 取涎 對停入蜜調勻 先以藥水洗後 付痔上 其冷如水『得效』

⑬ 汗：能發汗已上 並煮湯飲『本草』

⑭ 風：主中風 面目腫 煮取汁 飲之『本草』

⑮ 傷寒：傷寒初覺頭痛身熱 便服葱豉湯 葱白一握 豉一合 生薑五片 水煎溫服 取汗 時疫 亦用此『本草』

⑯ 瘟疫：治天行時疾 頭痛熱狂 濃煎葱白湯 飲之『本草』

⑰ 婦人：治胎動不安 或胎上搶心煩悶 葱白大者二十莖 膿煮汁飲之 胎未死 卽安 已死卽出 神效『本草』

## 2) 湯液編 原文

(1) 性味：性涼 (一云平) 味辛 無毒

(2) 主治 功效：主傷寒 寒熱 中風 面目腫 療喉痺 安胎 明目 除肝邪 利五藏 殺百藥毒 通大小便 治奔豚 腳氣

(3) 채취 및 특징

① 處處種之 宜冬月食 只可和五味用之 不宜多食 蓋開骨節出汗 虛人故爾

② 一名凍蔥 謂經冬不死 分莖栽蒔 而無子也 食用入藥最善

③ 此物 大抵 以發散爲功 多食 昏人神 且白冷 而青熱 傷寒藥 去青葉者 以其熱也④ 蔥者菜之 伯雖臭 而有用 消金玉成漿『本草』

⑤ 入手太陰經 足陽明經 以通上下之陽也 專主發散風寒『湯液』

(4) 종류 및 특징

① 實：卽蔥子也 明目 溫中益精『本草』

② 根：卽蔥鬚也 主傷寒 陽明經頭痛『本草』

③ 葉：治諸瘡 中風水腫痛 成破傷風『本草』

④ 花：主脾心痛『本草』

⑤ 胡蔥：性溫 味辛 無毒 溫中 消穀下氣 殺虫 久食傷神 損性 ○其狀 似大蒜 而小形圓 皮赤 稍長 而銳 五六月採 亦是葷物耳『本草』 ○味似蔥 而不甚辛 疑是今之紫蔥也『俗方』

## ◆ 歷代醫家の 說<sup>4)</sup>

汪紱에 의하면, “陶弘景이 蔥은 寒熱이 있는데, 白은 冷하고 靑은 熱하다. 그러므로 傷寒藥中에 靑한 것은 使用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 다만 全用하면 一身을 通行하고, 根과 莖白은 肌膚로 行하고, 靑과 尖한 部分은 오로지 肌表에 行達하여 頭目에 上行하고, 外用에는 生用하고 泡湯하면 表를 散하고, 熟用하면 中守한다.”고 하였다.

賈所學에 의하면, “蔥頭는 辛溫通竅하여 오로지 發散을 主하여 一切 表邪의 證에 發汗逐邪하고 關節을 疏通한다. 대개 風寒濕氣가 皮膚經絡 사이에 感하여 아직 臟腑의 內로 深入하지 않았으면 마땅히 速히 祛하여 毛竅를 開發하여 邪氣의 出路를 放하면 곧 榮衛가 通暢하게 된다. 다만 發表의 意義와 用法이 不同하니 모름지기 溫熱寒冷이 모두 通表解散하는 것을 알아서 使用해야 하니, 만일 外感風寒의 邪가 다만 表에 있으면 麻黃, 羌活, 紫蘇, 白芷 등의 辛溫劑를 加入하여 發散을 主로 하고, 만일 內畜鬱熱에 邪渴이 表에 있으면 寒冷과 辛溫을 併用하는 藥劑를 加入하여 發表한다. 하나는 腸胃를 淸하여 積熱을 除去하고, 하나는 玄府를 開放하여 鬱邪를 逐出하므로 雙解와 通解의 意義가 있다. 만일 邪가 半表半裏에 있으면 柴胡, 葛根 등의 苦涼劑를 加入하여 和解해야 한다.”고 하였다.

## ● 考察

蔥白은 單方門에서 무려 17회나 使用 되었으며, 廣濟秘笈에서도 상당히 여러 곳에서 사용하였다. 그 만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가 좋다는 것인데, 그 쓰임을 보면 表證에서 發表하는 것과 氣鬱로 因한 心腹의 脹痛 腹痛 大小便不通에 두루 使用되었다. 廣濟秘笈에 보면 一切 疫病이나 쇠붙이에 의한 痛症에 蔥白을 使用하였다.

## 2. 烏梅

1) 單方門 原文

① 夢：治不眠 作茶飲 令得睡『本草』

4)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년, p. 240

- ② 津液：止好唾 作茶 飲之『本草』
- ③ 痰飲：去痰止渴 可作茶 飲『本草』
- ④ 肺臟：收肺氣 作茶飲之『湯液』
- ⑤ 大腸部：澁腸 作茶飲之『本草』
- ⑥ 大便：澁腸止痢 ○血痢 白梅肉一箇 合臘茶 加醋湯沃服之一啜而差 ○赤痢及久痢 烏梅水煎 和蜜服 ○休息痢 合建茶乾薑爲丸 服之大驗『本草』
- ⑦ 火：治骨蒸 去煩悶 水煮作茶 飲『本草』
- ⑧ 內傷：治食麪不消 膨脹 取肉作丸 白湯下 三十丸『類聚』
- ⑨ 霍亂：治霍亂煩渴 水漬 和蜜飲之 妙『本草』
- ⑩ 消渴：療口乾 止消渴 作渴和少蜜 常啜『本草』
- ⑪ 瘧疾：主熱瘧 煩渴 煮湯飲『本草』

2) 湯液編 原文

(1) 性味：性平 味酸 無毒

(2) 主治 功效：止渴 令人膈上熱

(3) 채취 및 특징

① 生南方 五月採 黃色梅實 火熏 乾作烏梅 又以塩殺 爲白梅 又烟熏之 爲烏梅 暴乾 藏密器中 爲白梅 用當去核 微熬之

② 生實酸 而損齒 傷骨 發虛熱 不宜多食 蓋人食酸 則津液泄 水生木也 津液泄 故傷齒 腎屬水 外爲齒 故也『本草』

(4) 종류 및 특징

① 烏梅：性煖 味酸 無毒 去痰 止吐逆 止渴 止痢 除勞熱 骨蒸 消酒毒 主傷寒 及霍亂 燥渴 去黑痣 療口乾 好唾『本草』

② 白梅：性煖 味酸 無毒 主金瘡 止血 點痣 蝕惡肉 除痰唾 ○水浸爲醋 和羹臠醬中好『本草』

③ 葉：濃煎湯 治休息痢 及霍亂『本草』

◆ 歷代醫家の 說5)

烏梅는 水氣의 純全을 얻고 生하였는데 陰에 屬한다. 性이 升도 하고 降도 하고 斂肺, 澁腸, 漏痰, 消腫, 殺蟲의 要藥이 된다. 烏梅는 酸澁하

고 溫하여 木瓜와 비슷하나, 다만 肺에 入하면 收하고, 腸에 入하면 澁하고, 筋骨에 入하면 軟하고, 蟲에 入하면 伏하고, 死肌惡肉, 惡疵에 入하면 除한다. 그러므로 久痢久瀉와 氣逆煩懣과 厲胃骨蒸에 對하여 그 收澁의 性으로 因하여 不脫케하며 上逆을 治함에 有效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癰毒에 貼하고, 咳血, 便血을 止하고, 中風牙關緊閉를 開하고, 蛔蟲이 上攻하여 腹痛眩仆함을 治하고, 口渴을 止하는 것이 이 어찌 酸澁收斂하는 것이 아니라. 또 助酸劑로 清涼, 解熱, 生津作用이 있어서 胃酸缺乏에 食慾不振, 消化力減退, 熱病末期의 津液衰少, 喉乾, 口渴 등 證에 適用한다.

● 考察

烏梅가 祛痰며, 또 生津한다는 것을 살펴보면 津液門에서는 ‘止好唾’한다고 했고 痰飲門에서는 ‘去痰止渴’한다고 했으니 보통 침을 잘 뱉는 것은 痰의 증상으로 볼 수 있고 祛痰하면 推塵生新하여 痰이 사라지게 하니 자연히 生津하게 되어서 渴이 止하게 되는 것이다.

3. 杏仁

1) 單方門 原文

① 聲音：可和酪 作湯 益潤 聲氣 ○欲好聲 杏仁一升 去皮尖 熬酥一兩 蜜少許 和丸 梧子大 米飲下十五丸 或二十九『本草』

② 津液：解肌發汗 水煎服『本草』

③ 肺臟：治肺潤燥散結 作粥服 甚佳『本草』

④ 面：去面黥 搗爲末 和鷄子白 夜臥塗面 明早溫酒洗之 ○傷風面腫 杏仁爛搗 附之『本草』

⑤ 耳：治耳痛出膿水 熬赤爲末 葱涎和丸 綿裹入耳中 日三易『本草』

⑥ 牙齒：牙齦痛 杏仁百枚 鹽一錢 水一升 煮令沫出 含漱吐之 三度差『本草』 ○杏仁 燒研 如泥 綿裹 納齒孔中 能殺虫『本草』 ○風虫 牙痛 鍼刺杏仁 清油燈上 烟熏 乘熱 搭病齒上 連用七箇 永絕不痛『得效』

⑦ 前陰：治婦人陰蝕瘡痒 不可忍 燒研如泥 綿裹

5)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년, p. 163

納陰中 能殺蟲 『本草』

⑧ 風：治諸瘡 入風水紅腫 欲成破傷風 杏仁泥 入白麪 和水塗之 卽消 『本草』

2) 湯液編 原文

(1) 性味：性溫 味甘苦 有毒 (一云小毒)

(2) 主治 및 功效：主咳逆上氣 療肺氣喘促 解肌 出汗 殺狗毒

(3) 채취 및 특성

① 處處有之 山杏不堪入藥 須家園 種者 五月採

② 入手太陰經 破核 取仁 湯浸 去皮尖 及雙仁 麩炒 令黃色 用之

③ 雙仁者 殺人 可以毒狗 凡桃杏 雙仁 殺人者 其花 本五出 若六出 必雙仁 草木花 皆五出 惟山梔 雪花 六出 此殆陰陽之理 令桃杏 雙仁有毒者 失其常也 『入門』

④ 生熟喫俱得 惟半生半熟 殺人 『本草』

⑤ 病人有火 有汗 童尿浸 三日用 『入門』

⑥ 杏實：性熱 味酸 有毒 不可多食 損神 傷筋骨 『本草』

#### ◆ 歷代醫家の 說<sup>6)</sup>

葉天士는 말하되, “杏仁은 氣澤이 天의 春和의 木氣를 稟하여 足厥陰肝經에 入하고, 味甘은 地의 中正의 土味를 得하여 足太陰脾經에 入하고, 杏菓는 本來 쓰며 또 核仁에 屬하여 少毒이 있으므로 火性을 稟하여 手少陰心經에 入한다. 氣味가 俱升하니 陽이다. 肺는 金臟이므로 氣가 上逆하여 肺에 오르면 咳한다. 肺가 氣逆을 苦하면 급히 쓴 것을 먹어서 洩하도록 한다. 杏仁은 苦하고 下泄하는 까닭으로 咳嗽을 몇게 한다. 火가 喉에 結하여 막히고 通하지 않으면 喉痺가 되며, 雷鳴은 火結痰壅하여 목소리가 詰는 소리와 같이 되는 것이다. 杏仁의 溫은 能히 散結하고 苦는 能히 下泄하고, 甘은 可히 緩急하기 때문에 이를 主한다.

杏仁은 味苦하여 肺를 制御하는데 이를 制御하면 生化하고 肺金이 下行하기 때문에 下氣한

다. 肝은 血을 藏하여 血이 溫하면 流行하므로 産乳를 主하고, 血이 이미 流行하므로 瘡口도 또한 合하므로 金瘡를 主한다. 心陽이 虛하면 寒水의 邪가 下로부터 脈과 같이 上奔하여 心君을 衝犯하므로 寒水奔脈이 되는데, 그것을 主하는 것은 杏仁이 火土의 氣味를 稟하여 能히 心陽을 이롭게 하고 水邪를 없애는 까닭이다.”고 하였다.

賈所學은 말하되, “杏仁은 味苦略辛한데 辛은 散結破氣하고, 苦는 利肝潤燥하고 色白은 入肺하여 主로 暴威風寒, 發熱咳嗽, 氣逆喘促, 小兒 風熱疹子를 治한다. 大概 病은 客邪가 肺를 犯함으로써 生기는 것이니 이로서 風藥發散에 佐하면 곧 氣가 맑아지고 肺가 寧하다.”고 하였다.

#### ● 考察

杏仁이 氣味가 甘苦하다 하나 그 質은 冷利하다. 冷利는 滋潤을 뜻한다. 咳逆上氣를 治하는 것은 肺氣를 利함이니 肺氣가 利하면 咳逆의 氣가 스스로 平安하다. 雷鳴은 邪가 大腸에 있는 까닭이며, 喉痺는 肝竅가 不利한 것이요, 下氣는 杏仁의 質이 潤하여 能히 下氣를 主함을 말함이니, 氣下하면 雷鳴과 喉痺가 모두 낫는다. 産乳는 産婦의 乳汁인데 解産하고 無乳하면 杏仁이 能히 通한다. 金瘡은 쇠붙이나 칼에 傷하여 瘡이 된 것으로, 杏仁이 能히 收斂하고 寒心奔脈은 腎臟水氣가 凌心하여 寒하되 脈이 上奔함과 같은 것이다. 杏仁이 肺를 治하니 肺는 金이요, 金은 水의 母가 되어 母가 能히 子逆을 刻함이요, 또 肺氣가 下行하면 水逆이 스스로 散한다.”고 하였다.

## IV.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게 되었다.

1. 한 가지 藥物이 각기 다른 條文에서 쓰이고 있음을 研究하여 그 藥物에 대하여 미처 알고 있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깊이 있게 理解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杏仁을

6)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년, p. 479

살펴보면, 흔히 알고 있는데로 去風의 약물로 麻黃湯의 主要 藥物로 쓰이며 咳嗽喘息에 주로 쓰여서 主咳逆上氣 하며 肺氣喘促을 治療하고 大腸氣閉를 치료해서 便秘에 쓰인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東醫寶鑑』單方門 및 『廣濟秘笈』에 그 쓰임을 보면 ‘去面黥하니 擣爲末 和鷄子白하여 夜臥塗面하고 早溫水洗之하라’고 하였고, ‘傷風面腫에 杏仁爛擣 附之하라’고 하여 面風에도 주로 사용되며, 耳에서도 ‘治耳痛出濃水하니 熬赤爲末하여 葱涎和丸하여 綿裹入耳中하라’고 하였고, 牙齒에서도 ‘牙齦痛에 杏仁百枚과 鹽一錢과 水一升을 煮令沫出하여 含漱吐之하라 三度差하리라’고 하였으며, ‘風虫牙痛 鍼刺에 杏仁을 淸油燈上하여 烟熏 乘熱을 搭病齒上에 連用七箇하면 永絶不痛하리라’하였고, 前陰에서도 ‘治婦人陰蝕瘡痒에 不可忍하니 燒研如泥하여 綿裹納陰中하면 能殺蟲하리라’하였고, 風에서도 ‘治諸瘡하니 治入風水紅腫하니라’고 하였다.

2. 「湯液篇」原文을 살펴보고 歲月이 흘러 현재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修治方法이나 藥物의 起源에 대하여 考察할 수 있었다.

### 參考文獻

- 허준, 동의보감, 서울, 대성문화사, 1990
- 허준(동의학연구소 역), 동의보감, 서울, 여강출판사, 1994
- 허준(서재광 편집), 동의보감 단방 용약법, 서울, 초락당, 2005
- 진준인, 한방의약대사전, 서울, 松嶽, 1990
- 俞孝通외, 향약집성방, 서울, 대성문화사, 1992
- 허준(이성준 편집), 탕증으로보는 동의보감, 대전, 오비기획, 2003
- 이시진, 본초강목,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2
-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90
- 金先熙외, 본초학, 서울, 영림사, 1991
- 홍원식, 중국의학사,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
- 金賢濟외, 한의학사전, 서울, 정보사, 1990
- 송병기, 한방부인과학, 서울, 행림출판사, 1994
- 汪昂, 醫方集解, 서울, 대성문화사, 1993
- 孟華燮, 方藥指針講座, 서울, 대성의학사, 1999
- 김영기, 苔巖隨聞驗方錄, 서울, 의성당, 2003
-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台北, 五洲出版社, 中華民國 70년
- 丁奎萬, 東醫小兒科學, 서울, 행림출판, 1994
- 蔡仁植, 韓方臨床學, 서울, 醫聖堂, 2005
- 金在吉, 臨床應用 韓藥炮製學, 서울, 藥業新聞社, 1992
- 蔡炳允, 東醫眼耳鼻咽喉科學, 서울, 集文堂, 1994
-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91
- 尹吉榮, 東醫臨床方劑學, 서울, 明寶出版社, 1992
- 姜珠奉, 傷寒論四象醫學講座, 서울, 石林出版社, 1999
- 蔡炳允, 韓方外科, 서울, 고문사, 1993
- 柳周烈, 東醫四象醫學講座, 서울, 大星醫學社, 1999
- 申佶求,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
- 허준,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2006
- 이경화, 廣濟秘笈, 평양, 조선의학출판사, 1963